

kiri Weekly

2014.4.7 제278호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논란

중국 보험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자금중개기능 확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유럽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유동성·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신용공급 여력이 위축되었음.
 - 기업들의 자금조달에서 은행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신용공급 및 대출확대를 장려하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
 - 보험업권의 자금중개기능 확대는 보험업권의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신용위험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해외채권 및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기업대출에 수반되는 신용평가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용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 기업대출 감소의 원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예대율 규제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2% 수준으로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1.7%에 비해 상당히 높음.
 - 2013년 보험권의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41조 원이나 2008년 23조 원 수준에 비해 18조 원이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반해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비중은 감소세를 보임.

-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안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물경제 발전의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보험업의 본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경제여건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예금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위축세가 지속될 수 있어 보험업권에 대해 자금중개기능 제고 요구가 늘어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의 높은 부채수준과 이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 위험관리 등이 기업대출 확대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1. 검토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고,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자금중개기능 제고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경우 담보가치 하락과 기업의 부채조정 등으로 신용시장 위축이 진행되었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음.¹⁾
 - 그리스 중소기업의 38%, 스페인 중소기업의 25%, 아일랜드 중소기업의 24%가 신용시장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반해 영국의 L&G, 프루덴셜, 프랑스 AXA, 소시에떼 제네랄 등 보험업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고 OECD도 보험회사, 연기금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이들은 정부의 요구 이외에도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는 측면이 있음.
- 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보험업계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속에서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는 리스크 확대 요인일 수 있으나 자금중개기능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에 미치는 보험업권의 역할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음.

1) IMF(2013. 9),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필요자금 조달의 75~80%)의 경우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필요자금 조달의 25% 정도만을 은행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²⁾
 - 기업의 대출수요가 미미한 일본의 경우 보험산업의 대출 비중은 높지 않음.
- 본고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보험회사의 기업대출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점검해보고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함.

2. 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



- 은행의 신용공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비(非)은행 기관투자자들의 기업대출 증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럽의 일부 연금 및 보험회사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음.
- OECD는 지난 2012년 4월 “OECD Financial Roundtable”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대출 시장(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이하 SME)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이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대출시장(SME)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전통적으로 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와 신용공여를 장려해왔음.
- 기업들의 은행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에서는 2012년부터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업권의 기업대출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왔음.
 - 로이터 통신(2013년 7월 10일자)³⁾은 프랑스 정부가 보험회사들의 중소기업대출 관련 규제 완

2) Gert Wehinger(2012), Bank deleveraging, the move from bank to market-base financing, and SME financing, pp. 3 인용함.

3) 로이터 통신(2013년 7월 10일자), “France looks to insurers to fill lending gap left by banks.” 인용함.

화 등 SME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풀릴 유동성이 최대 9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최대 보험사인 AXA는 소시에떼 제네랄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기업대출시장에 진출, 이미 5억 유로를 프랑스 및 유럽의 중소기업들에 대출함.

● 영국에서도 연기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SME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2014년 2월 23일자)⁴⁾에 따르면 영국 최대의 연기금 투자자인 Legal & General(이하 L&G)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영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 2,000만 파운드 이상, 10년 이상 대출에 나서기로 함.

■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보험산업의 경우 버블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보험회사의 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하였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1980년대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은행들의 거래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리스회사 등 은행 자회사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ALM 등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확대되었음.

- 대규모 용자조건에 의해 리스회사가 동일 계열의 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모두 대출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대출이 증가하였음.

● 기업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된 2000년대부터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ALM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은 줄어들었음.

■ 일본의 경우 기업의 신용도 평가 등 대출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회수 기간이 길어져 자산운용처로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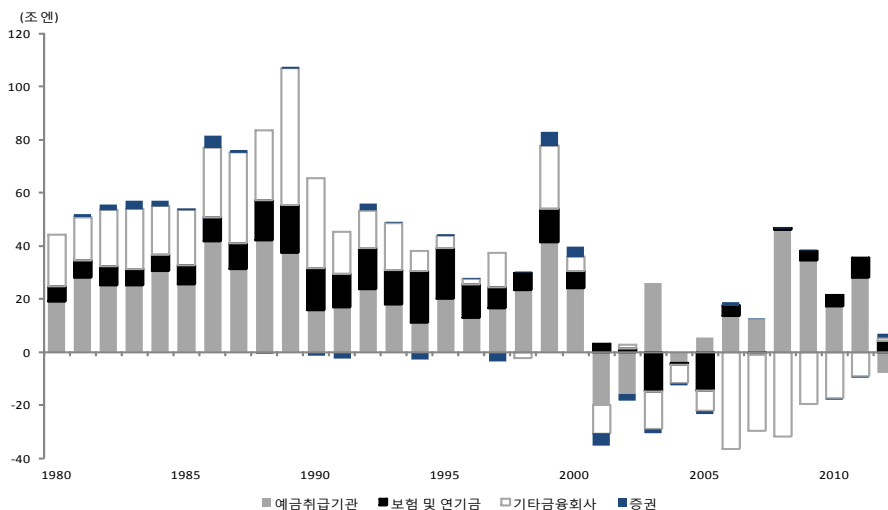
● 일본의 경우 대출 운용기간이 5~6년인데 비해 부채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미스매치로 인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대출은 자산운용처로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됨.

● 기업대출보다는 해외채권, 해외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사무소 설치와 해외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에는 신디케이트론에 보험회사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은행이 신디케이트론을 주관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음.

4) 파이낸셜타임스(2014년 2월 23일자), "L&G plans to begin lending to larger SMEs." 인용함.

〈그림 1〉 일본 기업의 금융업권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일본은행.

■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에 보험회사, 연기금 등 비은행계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들이 장기투자 이외에도 실물경제 활성화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⁵⁾

● OECD는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악화에 따른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음.

- 지난 2011년 G20 정상들은 중소기업금융포럼(SMEFF)을 발족기로 합의하고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들을 교환하기로 함.
- 지난 2012년 4월 “OECD Financial Roundtable”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적으로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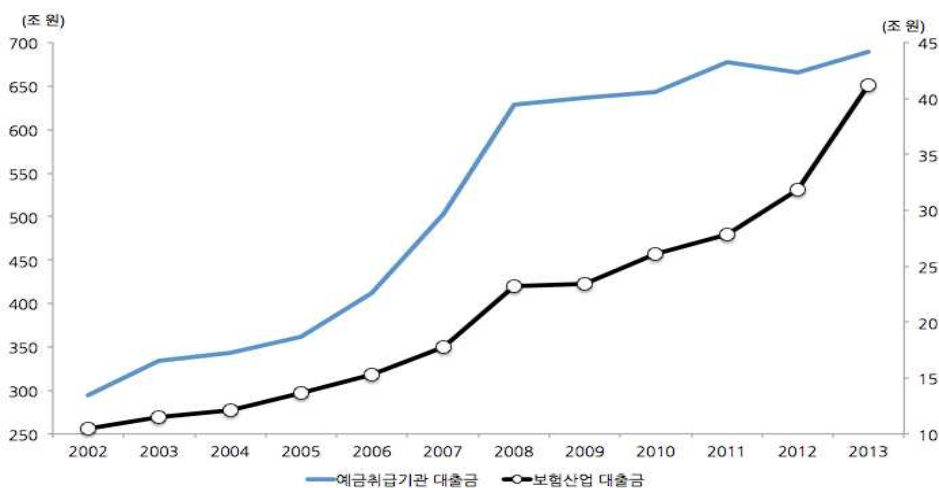
5) 장기투자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인프라투자과 부동산 투자 수요가 2030년까지 각각 4조, 5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저축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수요 충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OECD는 보험회사, 연기금 등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상위원칙(High Level Principles)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3. 국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



- 국내 민간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730조 9,320억 원이며 그 중 보험산업 대출금 비중은 5.6% 수준임.
 -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민간기업의 보험산업의 대출금 잔액은 2002년 10조 4천억 원 수준에서 2013년 4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도 3.4%에서 5.6%로 높아졌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보험산업 대출 잔액 연평균 증가율은 12.0%로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1.7%보다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산업의 기업대출이 증가하여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기업대출 비중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08년 7.3%(4조 1,706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8.5%(10조 604억 원)를 차지했음.
 - 반면에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08년 6.7%(15조 9,606억 원)에서 2012년에는 5.1%(21조 9,530억 원)로 하락세를 보였음.
 - 개인대출의 경우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모두 운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음.

〈그림 2〉 민간기업의 예금취급기관과 보험회사로부터의 대출 잔액 추이



자료: 자금순환(2013).

〈표 1〉 국내 보험업권 운용자산 대비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비중

(단위: 십억 원,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개인대출	비중	기업대출	비중	개인대출	비중	기업대출	비중
연도								
2008	46,776	19.6	15,961	6.7	8,982	15.7	4,171	7.3
2009	47,569	17.8	16,417	6.2	9,935	15.0	4,964	7.5
2010	48,288	15.9	18,044	5.9	11,137	14.0	6,184	7.8
2011	52,283	15.5	17,713	5.3	14,455	15.2	7,854	8.3
2012	57,645	13.4	21,953	5.1	16,564	13.9	10,060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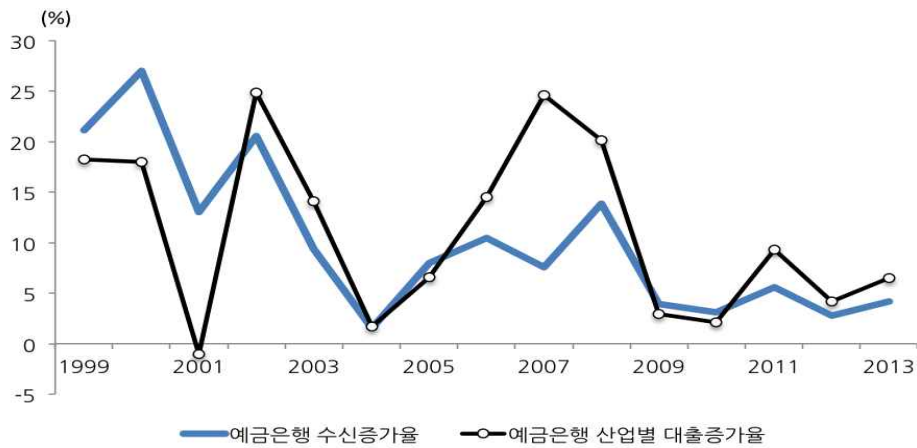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행태가 크게 달라진 점도 은행권의 기업대출 둔화세의 원인이며 향후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규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권의 기업대출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원화예수금(시장성 수신 제외)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2009년 12월에 도입되었음.
 - 2007년 12월 122.2% 수준이었던 예대율은 2010년 8월 99.9%, 2012년 5월 96.0%로 하락하였음.⁶⁾
 - 예대율 규제 도입 이전 시장성 수신 비중이 높아 국내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유동성 관리 수단임.
 -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대율 도입과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예금은행의 수신 증가율과 산업별 대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 증가율은 2008년 20.1%에서 2009년 2.9%로 크게 둔화되었고 이후 소폭 회복되어 2013년 말 6.5%를 기록하였는데, 월 평균 증가액은 약 5조 원 내외임.
 -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의 경우도 2008년 13.9%에서 2009년 3.9%로 둔화되었고 저금리 장기화로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지며 은행 수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6) 예대율 규제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농협, 외은지점 포함)에 적용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 특수은행은 적용에서 제외됨. 금융감독원(2011. 9월), 한국은행(2012. 9월).

〈그림 3〉 국내 예금은행 수신증가율과 산업별 대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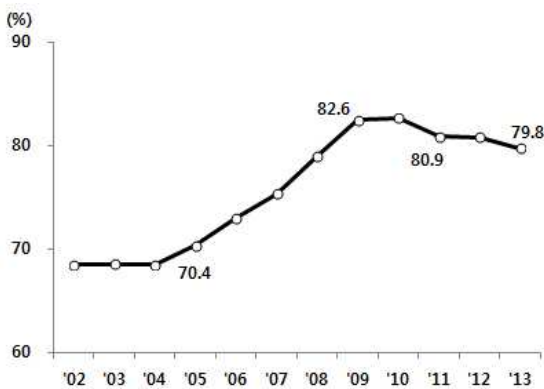


주: 예금은행 수신은 말잔 기준 원화예금임.
 자료: 한국은행.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기업부채 수준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의 부채조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향후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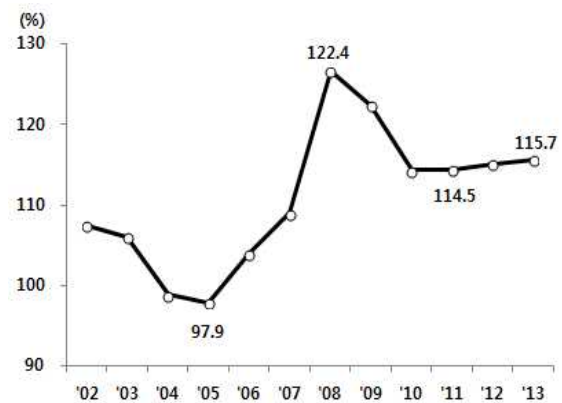
- 국내 기업들은 2005년 이후 회사채발행,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기업부채를 크게 늘렸고 부채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조정이 미진한 상황임.
 - 국내 민간기업의 GDP대비 부채 비율 2008년 122.4%에서 2013년 말 115.7%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소폭 증가하고 있음.

〈그림 4〉 유로존 GDP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추이



주: 2013년은 1/4~3/4분기까지의 평균임.
 자료: E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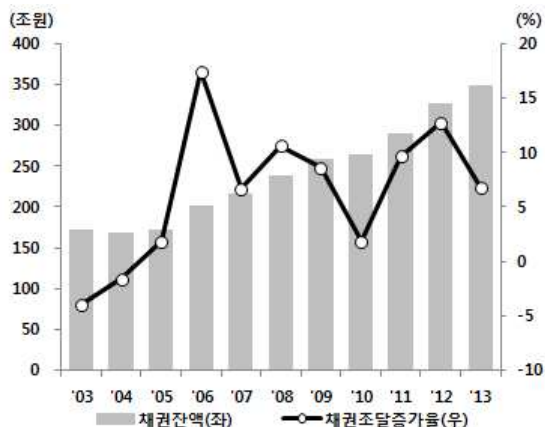
〈그림 5〉 한국 GDP대비 기업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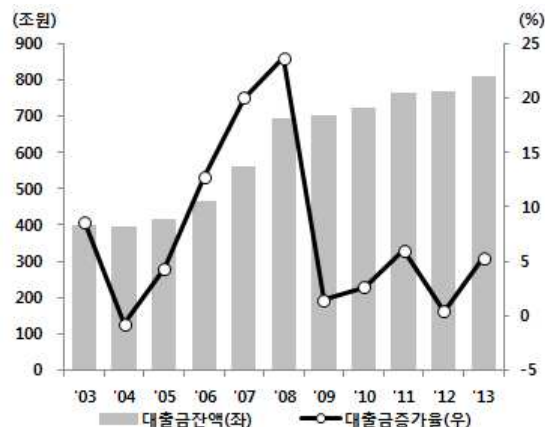
- 국내 기업의 신용리스크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데, 기업의 금융부채가 회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한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6〉 한국 기업의 회사채 발행 현황



주: 기업은 비금융 민간법인.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한국 기업의 대출규모와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2013년 GDP 대비 민간기업 부채비율 115.7%는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하는 위기발생의 임계치 80%를 크게 웃돌고 있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유럽의 경우 기업 부채조정이 임계치인 80% 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장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경우 정부의 장려책과 맞물려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보험회사들의 자금중개기능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발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바젤 III 등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 효과가 불러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 위축을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이 채워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권의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보험산업의 기업대출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기업대출, 인프라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새로운 자산운용처가 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신용공급 위축으로 자금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수준이 높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어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확대는 관련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예금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은행의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유럽과는 달리 신용위험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우리나라 보험업권의 자금중개기능 역할 제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회수 기간이 길고 회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수준의 기업 신용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인프라가 미흡함.

- 더욱이 높은 기업부채 수준으로 기업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금중개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은 이해되나 보험업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위험관리이며 자금중개기능은 보험업의 부수적인 역할과 기능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보험업의 본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커버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 하는 역할이며, 개인과 기업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임. [kiri](#)